

불자 CEO들의 경영철학

나보다 고객·직원이 먼저

부다의 경제학(4)

경쟁 상대도 보살행 대상

기업들이 새로운 경영전략과 목표를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정부의 각 경제부처도 올해의 경제정책을 속속 내놓았다.

이들 기업 및 정부의 청사진을 살펴 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을 빠짐없이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경쟁력을 기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을 우리도 지경도록 들으면서 살고 있다. 우리의 행복은 누군가와 경쟁해서 쟁취하는 전리품이 되었다. 그러나 경쟁자의 불행은 대가로 얻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저명한 생물학자 다윈은 그의 저서 <종의 기원>에서, 자연환경에 부적합한 종은 도태되고 적합한 종만이 살아남게 된다는 자연도태설을 주장했다. 이

로운 번식을 통해 그것이 지속되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쟁자들과 사생결단의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된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남기 위해.

그러나 내가 아니면 내가 죽어야 한다는 사생결단의 삶이 인간의 세계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우리가 지금 경제활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쟁의 개념 뒤에는 무아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무지와 무명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사생제와 연기의 진리를 증득한 인간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개념이다. 무아의 이치를 깨닫고, 모든 중생이 서로 인연을 만들어 살아 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러한 경쟁이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도 파멸적인 지 바로 알 수 있다.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는 이생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정신적, 물질적인 자원을 얻기 위해서

미국의 '강철왕'으로 불리는 앤드류 카네기(1835-1919). 미국 철강시장의 66%를 차지하는 US스틸사를 일군 그는 경영을 통해 얻은 부를 사회에 환원한 CEO로 유명하다. 훗날 미국인들에게 '강철왕'으로 불리게 된 것도 이 같은 경영철학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CEO의 경영철학은 경영이념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존재 이유와 경영활동을 방향 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CEO의 경영철학에는 경제관과 종교관, 인생관 등이 녹아 있기 마련이다. 남중수 KT 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불자 CEO들의 경영철학 속에서도 불교적 신념과 가치관을 찾아볼 수 있다.



남중수 사장 | 남용 사장 | 한준호 사장 | 박해춘 사장 | 장혁작 사장

'Wonder 경영' | 지혜 공간으로 | 투명한 윤리경영 | 강력한 추진력 | 법화경 20년 사경
'수류득묘' 상통 | 강한 인재 육성 | 나눔기업으로 | 비결은 心 경영 | 하심·배려 생활화

◇남중수 KT 사장
민영 2기 KT호 선장을 맡은 남중수 사장의 경영철학은 고객 관점, 주인의식, 열린 문화를 근간으로 한 'Wonder(놀라운 감동) 경영'으로 요약된다.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영이다. 그래서 남 사장은 자신을 CEO 대신 CSO(고객만족 전문경영인)라고 표현한다.

남 사장의 'Wonder 경영'의 근간에는 '물 흐르듯 순리에 따르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수류득묘(水流得妙)의 진리가 깔려 있다. 남 사장은 "화창시절 즐겨 읽던 불교서적에서 이 말을 접한 뒤 어려울 때마다 떠올려 힘을 얻는다"고 고백한다.

남 사장은 2004년 9월 취임 직후 첫 활동으로 사내 봉사단체의 이웃돕기에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또한 직원을 소중히 생

각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인재경영을 실현하고 있다. GE의 잭 웰치 회장을 가장 존경하는 CEO로 꼽는 이유도 인재에 소중히 여기는 경영스타일 때문이다.

◇남용 LGT 대표이사 사장
LG텔레콤을 8년째 이끌고 있는 남용 대표이사 사장. '지혜 경영, 가치혁신 경영, 정도 경영'을 경영이념으로 '강하고 지혜로운 인재들의 회사(The People Company)'라는 인재육성 원칙을 세운 장본인이다.

남 사장이 개인적으로 흔히 쓰는 단어에 불교의 진리를 상징하는 '지혜'가 포함돼 있다. 그만큼 그의 가치관에는 불교가 각인돼 있다. 대학 재학 시절 서울대총불교학생회장을 맡았고, 힘들 때마다 경전을 벗으로 삼았다.

남 사장은 LG그룹내에서 행동하는 전략가로 평가받는다. 옳다고 판단되면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추진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주변에서는 그런 남 사장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경구와 접목시킨다. LG가 추구하는 '성실하고 우직함' 인재상과 닮았기 때문이다.

◇한준호 한국전력공사 사장
7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에 선정된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2004년 3월 34대 1의 공도 경영률을 뚫고 거대한 공공 한국전력 CEO로 선출된 한준호 사장은 취임 초기부터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다.

윤리 경영, 열린 경영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며 투명한 기업운영을 추진했고, 국내 최대의 사회봉사단을 창단한데 이어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나눔 경영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 사장의 '윤리 경영'에는 진각종 신교도로서의 정직한 생활이 그대로 담겨있다. 서울 강남 행원심인당의 자성일 불공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등 신실한 신행활동에서 우러난 한 사장의 윤리경영은 한국전력에 불어닥치던 부패와 권료주의라는 꼬리표를 때려냈다. 이제 그는 경제관료에서 잘 나가는 CEO로 변신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구조조정'의 달인'이다. 지난해 박 사장은 사장선고를 받았던 LG카드를 순이의 1조원을 달성한 우량기업으로 변화시켜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

매물한 구조조정의 이면에는 박 사장의 성격과 다른 꼼꼼함이 있다. 비결은 불교다. 평소 부인과 함께 사찰을 찾아 기도를 하거나 매일 아침 참선으로 마음을 가다듬으며 일하는 것이다. 이를 박 사장은 회사에서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직원들에게 마음을 바치는 심(心) 경영으로 구현하고 있다.

결혼기념일을 맞은 직원들에게 직접 축하카드를 쓰고, 명절 때에는 전 직원에게 응성메시지를 남겨 기를 살려주는 독특한 방법이다.

◇장경작 롯데호텔 대표이사 사장
지난해 장경작 대표이사 사장 취임 이후 롯데호텔은 국내 1등 호텔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롯데그룹의 고급화전략에 맞춰 CEO를 주고객으로 하는 초특급 비즈니스 호텔이 목표다.

웨스틴조선에서 수직사업의 귀재로 불렸던 장경작 사장은 '체인지 워드 미(Change With Me)' 혁신 프로젝트를 들고 장소를 바꿔 롯데호텔의 포스트에 섰다. '체인지 워드 미'는 변화를 향한 장 사장의 경영철학이 담겼다. 취임 전 2년여간 치열한 구도의 길을 걸으며 얻은 결과다.

장 사장은 600쪽에 달하는 <법화경>을 20번이나 사경하고, 무릎이 까질 정도로 절 수행을 이어왔다. 이 기간은 장 사장에게 하심하는 마음과 남을 배려하는 법을 배운 소중한 공부로 남아 있다.

집단 위한 행동도 결국은 자신 위한 것 경쟁 개념 뒤 무지·무명 존재함 알아야 소비자에게 질 높은 이타행 자세 필요

이론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인간 사회에서 인간 및 인간 집단도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든다.

경영학자,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시각에서 기업과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장애의 환경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비할 것을 강조한다. 경쟁력이라 바로 이 대비책을 말한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한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생물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물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번영보다 자기 자신의 생존 및 번식을 보다 강력히 추구한다. 본능적으로 동물의 모든 행동은 자기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학 자신의 집단을 위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이타적인 성질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동물의 생존 및 번식 본능은 불교적으로 말하면 아집에 다름 아니다. 영원히 번치 않는 자기 자신이 존재한다는 믿는 무지와 무명에서 비롯된 그릇된 집착이다. 현재의 자아를 존속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또 한 편으

이다. 그리고 그 과정조차도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의 과정이다. 우리 인간 단도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든다.

경쟁의 상대방도 보살행의 대상이다. 타인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한 경쟁은 우리 인간이 할 도리가 아니다.

굳이 우리가 경제활동의 목표로 경쟁력을 삼는다면 그 때 경쟁이라는 개념은 타인을 도태시키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고객 및 소비자에게 보다 질 높은 이타행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어야 한다. 경쟁력을 도태시키고 우리가 더 잘살기 위해, 경쟁기업을 도태시키고 우리 기업만이 잘 되게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쟁은 결코 불교적 성질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노력이 인간의 경제활동이지만, 다른 사람이 못 쓰게 하고 나만 쓰려고 하는 노력이 올바른 경제활동은 분명히 아니다.

■구병진(경영학 박사)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법회 찬불가 CD

법회 찬불가 CD는 법회 의식곡과 찬불가를 모아 의식·법회용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집회가' '삼귀의' '정법기' '사홍서원' 등 의식곡은 물론 '성불하십시오' '우리도 부처님 같이' '홀로 피는 연꽃' '초파일 송가' 등 모두 22곡을 실었습니다. 합창곡CD의 노래는 자비할정단과 불자가수 장미화, 진미령, 심영자, 정유정, 명용희 등이 불렀습니다.

가격: 2만원(별매 가능)

등·불·로·전·하·는·자·비·광·명

찬덕연등

삼보에 귀의하옵시다.
저희 찬덕연등과 임직원들 성심껏 키워주신 사부대중께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찬덕연등은 전통의 미와 현대의 감각을 잘 조화시켜 한국을 대표하며, 세계속에 우리 불교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소명을 갖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hanDuk Lotus Lamp

종등 | 팔각봉축점등 | 공단등 | 팔각조립등(반야심경) | 주름등(만월봉축등) | 공단황금등

전화 : (031) 792-6288, 794-4055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준곡동 180-1

※ 연등, 카다로그 요청시 발송해 드립니다

공교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사찰명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약 30일이 소요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주름등, 종등)